

# 완주 술테마박물관, SNS 소통 나선다

### 시내버스 노선 운행 기념... 내일부터 이벤트·체험교실 행사 진행

완주군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이 SNS 누리꾼들과 소통에 나선다.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은 오는 13일부터 시내버스 경유노선에 박물관이 운영됨에 따라 방문객 및 관광객의 수요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여 'SNS 이벤트' 및 다양한 8월 체험교실과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술테마박물관과 추억 나누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박물관을 방문객 및 관광객이 인증샷을 자신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사진과 방문소감을 올리면 관람료가 면제된다.

매주 토, 일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발효체험교실'이 진행된다. '단팔발효빵, 누룩피자'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체험 전일까지 신청하면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8월 한달동안 술박물관에 방문하면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전통주 및 우리나라 명인주 시음할 기회와 함께 오는 20일에는 정성과 효능을 담은 수 '약주(藥酒)'를 주제로 기획전이 열린다. 이번 기획전에는 우리나라 약주의 유래, 문헌 속 약주 제조법 및 다양한 약주가 전시될 예정이다. SNS 이벤트는 오는 8월 10

일부터 9월말까지 진행된다.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SNS 이벤트를 통해 술테마박물관이 온라인 소통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옥마을 등 주변관광지와 연계관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박물관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군 구이면에 위치한 술테마박물관은 우리나라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술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수장형 유물전시관, 주점 재현관을 비롯한 9개의 전시 공간에서 5만 여점에 달하는 방대한 유물을 보여주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 '뮤지션 양방언' 군산 온다 13일 예술의전당서 선보여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뮤지션 양방언의 '양방언 에블루션 2016' 기획공연이 13일 군산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다. 양방언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 공연 음악감독으로 명성을 알렸으며, 현재 아시아를 넘어 영국, 독일 등 유럽 등에서 작곡가, 연주자, 프로듀서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이번 공연은 오랫동안 그와 활동을 함께 해온 트럼펫과 트럼본, 색소폰 등 세계적 브라스 주자들이 내한해 협연을 펼치며, 팝과 클래식, 서양악기와 우리 전통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으로 크로스오버의 진수를 보일 예정이다. '양방언 Evolution 2016'은 유료공연으로 R석 3만원, S석 2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http://arts.gun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진인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클래식, 록,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뛰어 넘는 새로운 음악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며 "이번 공연은 2016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일환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만큼 문화소외계층 30%이상을 초청해 많은 시민들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한국고미술품 진짜와 가짜'

### 전주미술관 특별기획전

골동·고완·고동으로 불리는 고미술품은 고아한 정취와 운치 그리고 희소 가치가 높은 조상들의 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골동품을 완성하고 식견을 구비하는 것을 문인의 감상지학이라 하여 교양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오원 장승업 '응시'

한국고미술품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던 해를 기점으로 일본인들에 의해 이익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매매와 도굴, 더 나아가서는 외국으로 반출되고 위조품이 제작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적잖은 애호가들이 한국문화유산 수호를 위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며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충의 문화유산으로 구성된 진품 200여점과 가품 70여점을 선보인다. 대표적인 한국고미술품 진품으로는 <후유삼백엽문매병>, <주철투각의갈이장>과 조선말기의 대가인 오원 장승업의 <응시> 등이 있다. 가품으로는 조선시대 대표 풍속화가인 단원 김홍도의 작품부터 근대작가 리재대의 <농악>, 소정 번관식의 <산수화>, 이응로의 <군상>이 전시된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서예작품 영인본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전주미술관은 9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국고미술품-진짜와 가짜> 특별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와 함께 연계프로그램으로, 8월 31일과 9월 28일에는 한국고미술품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고미술품의 디테일한 멋과 단아함을 알리고, 진품과 가품을 비교 감상함으로써 이를 구분하는 안목을 넓힌은 물론 진품이 갖는 진정성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전주미술관 김광이 관장은 "단순한 유물로서의 관찰이 아닌 풍류, 한국고미술품이 주는 친근함과 시각적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6 JUMF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Jeonju Ultimate Music Festival)' 공연에서 관객들이 환호하고 있다.

## 한여름의 음악축제 전주 얼티밋 뮤직페스티벌 성료

5일~7일간 전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6 JUMF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Jeonju Ultimate Music Festival)'이 총 2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음악의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6 JUMF는 전북지역에서 열리는 최초·최대 규모의 한여름의 뮤직페스티벌이다.

이어진 뮤직페스티벌에서는 자이언티와 DJ DOC 등이 흥겨움을 선사하며 종합경기장을 뜨겁게 달구었고, 이튿날에는 이승환을 비롯해 YB, 국가스텐 등 록스타들이 에너지 넘치는 공연으로 팬들의 호응에 화답했다.

개막 첫 날은 대학가요제의 부활을 알린 창작가요제로 포문을 열었다. 컬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가요제는 2013년 이후 막을 내린 대학가요제를 잇는 젊은 뮤지션들의 등용문으로 관심을 끌었다.

마지막 날에는 전인권밴드, 브로컬리 너마저, 어반자카과 등의 아티스트들이 개성 있는 무대를 펼쳐보였다.

총 340타이머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본선에 오른 13팀 중 대상은 18살의 신예 싱어송라이터인 오예린 양이 차지했다. 그녀는 영화 '귀향'에서 영감을 얻은 창작곡인 '인니야'를 선보여 감각 있는 리듬 뒤에 숨은 애절한 위안부 여성들의 삶을 담아내 심사위원과 관객의 공감을 자아냈다.

이번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은 타지 관객이 65% 이상을 차지, 관광 유입 효과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전통에 묶여 있던 도시 이미지를 좀 더 젊고 활기찬 이미지로 개선하는데 상당부분 도움이 됐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로운 얼굴의 싱어송라이터와 순수 창작곡 발굴을 위해 마련된 창작가요제는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일반도에서 탈피해 순수 창작가요 경연의 불씨를 되살리고,

전주MBC 원만식 사장은 "2만여 명의 관객이 찾은 JUMF를 통해 음악축제에 대한 젊은이들의 감응을 알 수 있었다"며 "여름 축제인 JUMF가 봄, 가을에 치중해 있던 전북 축제의 외연을 넓히고, 젊은 전북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매주 월요일 정상개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매주 월요일 휴관하던 운영방식을 변경해 8일부터 월요일에도 정상 개관한다.

근대미술관(구 18은행군산지점), 근대건축관(구 조선은행군산지점), 진포해안테마공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는 군산을 찾는 관광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박물관은 2013년 22만 명, 2014년 41만 명, 2015년 81만 명 등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오는 20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저녁 다양한 문화공연과 함께 저녁 9시까지 야간개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야간 개관의 경우 무료로 진행될 예정으로 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에 근대역사교육의 현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군산의 근대기 수탈과 저항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월요일 개관을 결정했다"며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근대 마당놀이 '수탈전'과 퍼레이드 공연 그리고 근대 인형극 등 독특하고 차별화된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람객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8월 9일>

**▷쥐띠**  
46년생: 언행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60년생: 시비가수가 따르는 운이다.  
72년생: 금전으로 인해 서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84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부지런히 움직여라.

**▷소띠**  
49년생: 금전운이 상승되는 운.  
61년생: 손아랫사람으로 인해 기쁨이 있는 운이다.  
73년생: 처음에는 서로 소통이나 나중에는 어긋나니 속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85년생: 차가 지나간 후에 손드는 격.

**▷호랑이띠**  
50년생: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뜻이 맞지 않으나 나중에는 잘 풀릴 것이다.  
62년생: 힘들었던 사람에게는 조력자가 나타나니 운.  
74년생: 뒷사람과의 화합을 도모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86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만족스러울 만 하나 큰 욕심은 금물.

**▷토끼띠**  
51년생: 아랫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3년생: 다른 사람과 화합하기에도 좋으며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 소통이 잘 되는 운이다.  
75년생: 상대의 모진 말이 오히려 도움이 되니 귀를 기울여라.  
87년생: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 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용띠**  
52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익이 있다.  
64년생: 뒷사람에게 좀 더 신경을 쓰고 말이라도 좋게 해 주면 생각지 못했던 복이 따를 것이다.  
76년생: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8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뱀띠**  
53년생: 물러서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현재를 잘 지키며 때를 기다려라.  
65년생: 근분을 잘 지키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77년생: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자중하는 것이 좋겠다.  
89년생: 금전이 잠시 들어오나 다시 나갈 운.

**▷말띠**  
54년생: 문서를 주고받는 일에 길운.  
66년생: 시간이 지연되니 잠시 쉬었다 진행함이 좋겠다.  
78년생: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동하기 보다는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90년생: 구설수가 따르나 자신이 행동한 결과이니 미리 방지하라.

**▷양띠**  
55년생: 평소 애 덕을 쌓았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상대방의 도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다.  
67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  
79년생: 남성은 여성의 도움을 받으면 일이 쉽게 풀리는 운이다.  
91년생: 식욕이 좋은 운이나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원숭이띠**  
56년생: 화근이 되는 것은 초기에 막아라.  
68년생: 타인과의 화합도 좋고 재물운도 좋다.  
80년생: 몸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니 우리가 되는 일은 삼가고 매사를 조심스럽게 진행하라.  
92년생: 타인에게 행동을 공평하게 하라.

**▷닭띠**  
57년생: 지나간 일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69년생: 금전운이 점차 좋아지니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81년생: 식욕이 좋은 운이나 과식을 조심하고 섭생에 주의하라.  
93년생: 화합에 좋은 운이니 동기간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운이다.

**▷개띠**  
46년생: 때로는 직진 보다는 돌아가는 것이 좋을 때가 있는 법.  
58년생: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마라.  
70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점심시간을 활용하라.  
82년생: 아직은 운이 침체되어 있으니 좀 더 준비하고 진행하라.

**▷돼지띠**  
47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하는 때.  
59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지출한 만큼 서서히 채워질 것이다.  
71년생: 사회적 계통이 좋지 않으니 과식은 삼가라.  
83년생: 운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